**물음)1 미국을 떠났던 제조업체들의 본국 귀환을 위한 미국정부의 세제혜택 정책 세 가지를 기술하시오.**

**1. 세율 인상**

2017년 12월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통과된 세제개혁법안(Tax Cuts and Jobs Act, H.R. 1, 이하 'TCJA')은 광범위한 세제개혁이 담겨 있어 레이건 행정부 하인 1986년 세제개혁법 이래의 대규모 개혁이었는데, 법인세율의 대폭 인하(35%→21%)가 포함되어 있었다. 트럼프 세제는 미국 법인들의 연방 법인세를 평균적으로 기존 16%에서 2018년도에는 8% 이하로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연방 법인세율이 기존 정부들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았음을 의미한다.

바이든 정부는 2017년 트럼프 정부 당시 연방 법인세율 인하로 급감한 세수를 다시 증대시키고 정부의 American Jobs Plan인 경제 부양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연방 법인세율을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부 미국의 조세 전문가들은 트럼프 세제를 악용하는 다국적기업들의 각종 소득이전, 조세 피난처 이용 등 tax planning으로 낮아진 세수를 회복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은 이번 바이든 조세 개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바이든 세제개혁안의 법인세 증세는 국내 법인세율 인상에 그치지 않고 미국 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상공회의소와 민주당 중도 성향의 Joe Manchin 상원의원은 28%의 세율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5%의 법인세율을 최대 협상이 가능한 한계라고 주장하면서 대치하고 있다. 특히 현 미국 상원의 민주당/공화당 비율이 50대 50인 상원에서 바이든의 세제개혁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Manchin 상원위원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미국 연방 법인세율의 인상은 25%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2. 저세율과세 무형자산소득(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 과세의 개정**

기존 저세율과세 무형자산소득(GILTI)은 세원잠식 방지를 위한 Anti-avoidance rule의 일환으로 해외에 보유한 IP 관련 "무국적 소득(stateless income ; 미국 뿐 아니라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이라는 의미로 통용되는 용어이다)" 창출을 종식시키는 취지로 트럼프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서, 미국 기업의 해외 소재 특수관계회사의 무형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CFC의 순소득(유형자산, 무형자산 모두에 귀속) 중 간주유형자산순소득(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Qualified business asset investment, 이하 'QBAI')의 10% - 이자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미국 주주(기업/개인)의 미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유형자산'은 CFC가 해외 현지에서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이용한 고정자산을 관련 법률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미상각잔액의 각 분기 말 금액을 평균한 값(QBAI)을 의미한다. GILTI를 계산 후 그 소득금액의 50%는 공제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미국 법인세 21%로 과세한다. 이는, 해외 소재 무형자산에서 유래하는 소득 가운데 그 절반은 미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보고 과세하는 것으로 해외에서 부과된 세액 중 80%를 GILTI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결국 실효세율인 13.125%(=21%×0.5÷0.8)가 GILTI에 의해 추가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되게 된다. 반대로, 해외 현지 세율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로 GILTI 세액은 계속 줄어든다. GILTI에 대한 비판들은 대부분 미국 다국적기업들이 해외투자를 세제의 기본 취지에 역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면세점인 "유형자산 가치의 10%"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실제로 해외 유형자산 규모가 큰 해외 자회사들은 수익률이 높지 않은 이상 과세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발생하는 순소득이 $10이고 해외 유형자산의 가치가 $100인 경우 10%의 QBAI를 차감하면($10) 사실상 GILTI 세액은 없다.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에 위치한 유형자산의 규모를 키워 QBAI의 10% 차감액을 증가시켜 총 GILTI 과세액을 현저하게 감소시켰으며, 이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 기업들의 지나친 해외 자산이전 방지 목적으로 도입한 GILTI 세제가 오히려 해외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법인들이 기존 제도 하에서도 미국에서 얻은 이익을 해외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자회사 수익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GILTI 적용의 기준이 되는 세율을 기존 10.56%에서 21%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GILTI 과세를 해외 특수관계자가 소재한 국가별로 계산하여 이른바 현재와 같이 모든 해외자회사의 유효세율이 합산·상계되어 결과적으로 유효세율이 교차공제되는 효과를 막을 예정이다.

이에 추가하여 바이든 정부는 QBAI의 10%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GILTI 과세 제도에서 해외 특수관계자에서 유형자산에 투자한 부분만큼 국외 투자 및 고용을 막고자 하였는데, 이는 미국법인에 대한 거주지국 과세권을 다시 부활시킴과 동시에 다국적기업들이 그 동안 미국의 내국법인에 비해 우대를 받았던 조세혜택을 제거하는 중요한 개혁조치로 평가된다.

**3. 세원잠식 남용방지세제(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이하 'BEAT')와 SHIELD제도의 보완**

세원잠식 남용방지세제(BEAT) 제도는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를 위해 트럼프 정부가 2017년에 도입한 제도로, 3년 평균 총수입이 최소 5억 달러를 초과하며 "세원잠식비율"이 최소 3%인 회사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BEAT 세제는 GILTI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성질이나 실질적 활동 여부, 조세회피 목적 등을 묻지 않고 기계적 계산으로 합산하는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BEAT는 GILTI와 달리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이익이 이전되는 국가 소재 법인의 실효세율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과세가 이루어진다. 조세회피가 목적이라면 미국보다 세율이 높은 국가에 굳이 이익을 이전하는 기업을 상정할 수 없으나, BEAT에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고려되지 않고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이 된다.

BEAT 세제는 대규모 다국적기업이 해외 관련 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을 이전할 경우 해당 소득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10%의 최소세율로 과세된다. 그리고 매출원가를 제외한 로열티, 이자와 같이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BEAT 세제의 산정 대상이다. BEAT 세액 계산 목적상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공제가능금액이 소득에 다시 합산되며, BEAT 전반적인 산정방식은 (BEAT 세율 × 조정과세소득) - (당해연도 과세액 - 특정 세액공제)이다. “조정과세소득”은 과세소득에 해외 관계자에게 지급한 공제가능금액 ("세원잠식지급액") 및 특정 이월결손금을 가산한 금액이며, "세원잠식지급액"은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송금한 지급액(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납세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감가/무형자산상각비 공제 포함) 중 공제가능 지급액이다.

세원잠식에 대해 GILTI나 기존 조세피난처 대책세제인 CFC (Controlled Foreign Company)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국외 지급을 통한 소득이전이나 '인버전'(Inversion)**\***에 대항하는 BEAT가 GILTI와 함께 도입된 것이다. 이는, GILTI와 같은 소득 합산 규정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자국 기업의 경쟁조건이 일방적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데 반해, 국외 지급이나 인버전에 대항하는 BEAT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GILTI와 BEAT의 조합은 OECD BEPS 포괄적 이행체제(Inclusive Framework, 이하 'IF')의 Pillar 2 논의에 참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BEAT 세제는 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에 대한 개별적인 방지 조치의 적용상의 한계로 인하여 도입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제적인 합의인 조세조약의 배제 (treaty override)라는 비판을 감수하고 미국의 자국 세원 확보를 위해 미국 국내법에 도입된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Inversion: 미국 기업이 해외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본사를 저세율 국가로(e.g., Ireland, Hungary 등) 이전하는 거래 유형을 의미한다(본사의 국적 이전). 대부분의 기업들은 Inversion이후에도, 주요 사업 운영은 미국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해외 본사를 미국에 있는 본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미국기업과 동일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았다.

한편, 바이든 정부의 SHIELD (Stopping Harmful Inversions and Ending Low-tax Developments) 제도는 기존 BEAT 세제를 대체하는 세제이다. 글로벌 총수입이 최소 5억 달러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본사가 해외 특수관계자에 지급하는 비용의 세금공제를 중단함으로써,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체제를 선도하며 인버전을 제재하는 제도이다. SHIELD는 다국적기업 그룹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 그룹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액 비용 공제를 부인하는 제도이며, 낮은 법인세율의 기준은 G7/G20/OECD Inclusive Framework에서 논의 중인 글로벌 최저한세인 15%가 유력하다. 이와 같이 BEAT를 SHIELD로 대체한 것은, BEAT 과세의 대상인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을 최저한세 미만 저세율국의 관련회사에 대한 지급으로 한정함으로써 세율인하 경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평가된다.

그 외에 그룹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액의 경우, 기타 공제 사항이 있는 경우, COGS(Cost of goods sold,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기타 비용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매출원가를 부인하는 것은 미국 헌법 제16조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매출원가의 공제는 허용하는 것이다.

BEAT 세액과 SHIELD의 세액을 비교하면, SHIELD는 다국적기업에게 현저하게 큰 세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 사용 등의 세원잠식 사례들을 방지하는 방안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급격한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다국적기업이 미국에서의 사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질 위험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있다.

동일한 취지로 민주당 상원의원이며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Ron Wyden은 SHIELD로 BEAT 세제를 대체하기 보다는, 기존 BEAT 세제의 단점들을 개선한 '개정 BEAT'를 제안하였다. 즉, BEAT 세제에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저소득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재생 에너지 사업에 투자한 기업에 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BEAT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세원잠식 납세자에 대한 BEAT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위 경감 방안에 따른 세액 감소를 충당할 예정이다. 통상의 사업 소득의 경우 10%의 BEAT 세율을, 그리고 세원잠식을 초래하는 비용에는 높은 세율 적용함으로써(e.g., 20%) 조세회피를 저지하는 동시에 다국적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수입은 SHIELD 세제를 통해서 필요이상으로 과세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상원 재정위원회의 활발한 움직임은 향후 바이든 세제의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물음2) 사물인터넷과 증강현실의 개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사물인터넷**(영어: **Internet** of Things, 약어로 IoT)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즉,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증강현실**(增强現實, 영어: augmented reality, AR)은 가상**현실**(VR)의 한 분야로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합성하여 마치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이다. 디지털 미디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된다.

**물음3)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사가 사용하고 있는 산업인터넷과 프레디스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산업인터넷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도 기술하시오.**

프레딕스(**Predix**)는 **GE**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산업인터넷 운영 플랫폼으로, 플랫폼 내에서 사용자가 산업인터넷에 최적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영어: **Internet** of Things, 약어로 IoT)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즉,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산업인터넷**은 전체 가치사슬을 통합해 참신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수단으로 삼아, 생산과 서비스에 걸친 기업의 모든 기능을 포함한 **산업** 제조의 디지털화와 스마트 연결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음4) GE의 경영자 젝 웰치와 제프리 이멜트의 경영방식을 성장전략, 주력업종 및 문제해결 방식의 관점에서 비교 기술하시오.**

